
도쿄 스미다구 스카이트리



연 3,000만명 찾는 '스카이트리 타워'

지역 소상공인·예술가 만든 물건 판매

“모든 주민에 관광지 개발 혜택” 목표

유행 대신 향토사에 기원한 축제 주목

634m 도쿄 最高の 관광 전파탑

명소 도쿄타워 높이 두배 육박

300여 대규모 상업단지 조성 등

경기침체 벗어나려는 日의지 상징

■관광을 통한 정주민구 확대=도쿄도 23구 중 정부의 DMO 등록 5대 요건(관계자 합의 형성, 연구개발기능, 자체 프로모션 성과, 조직구조, 운영자금)을 갖춰 등록을 마친 구는 스미다구가 유일하다. 특히 구청장은 지역 관광 개발의 목표를 '관광객으로 하여금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느끼게 하는 것'에 뒀다. 이는 지역관광을 통한 지역창생이란 정부의 방향과도 맞아떨어졌다. 올 4월부터 파견된 타카시마 구청 과장은 자신을 '민관의 파이프라인'이라며 여러 부서를 이동했지만 주로 민간 협력 업무를 맡았다고 소개했다.

랜드마크, 도시를 살린다… 풀어 관광·소비·지역 활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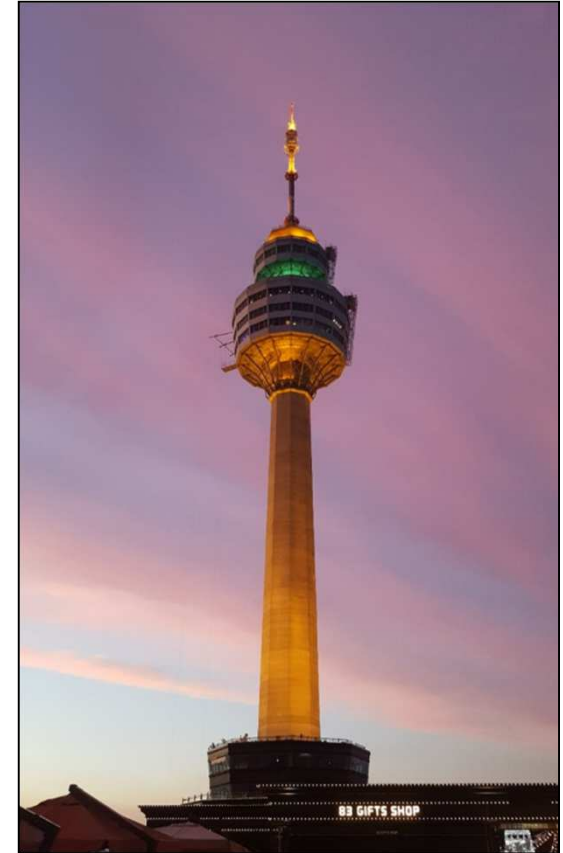
지상에서 445m 떨어진 곳. 도쿄를 발아래에 두고 하늘 위 산책을 즐긴다. 파란 하늘 너머로 일본의 상징인 후지산이 눈에 들어온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파탑인 도쿄스카이트리 전망대의 모습이다. 도쿄스카이트리는 지난해 8월 리우올림픽 폐회식 때도 등장했다. 도쿄스카이트리(634m)가 일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지구촌에 각인된 것이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꿀 뿐 아니라 여행객들의 지갑을 열게 하고, 지역경제에 훈풍이 불게 만드는 초고층빌딩 경쟁이 아시아에서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등 각국에서 도시와 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잇달아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파리 에펠탑]



[서울 남산타워]



[대구 83 타워]

[천생산]



[에코랜드]



구미타워

[박정희 생가]



[낙동강]



[금오산 올레길]



구미시 수출탑

